

I. 國內外 經濟 概觀

國內 經濟 概觀

- (景氣 沈滯) 파업 및 한보 부도의 여파로 실물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
- (史上 最大의 經常收支 赤字) 수출 부진으로 97년 1월 경상 수지 적자는 30.6억 달러의 월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
- (金融 變數의 不安定) 실물 경제의 부진으로 환율, 금리, 주가 등 금융 변수들의 불안정성 심화
- (展望) 실물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없이 경기 침체의 가속화와 금융 변수들의 불안정한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
파업 및 한보 부도
여파로 경기 침체
가속화

- (景氣 沈滯) 파업 및 한보 부도 여파로 내수 및 투자활동이 부진해지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기가 급격히 침체
 - 12월 도소매판매액 증가율은 백화점 판매 부진과 자동차 수요 감소로 4년만에 최저치인 4.6%로 나타남
 - 한보 부도의 여파로 서울 지역 어음 부도율은 96년 12월 0.12%에서 1월 0.19%로 급상승
 - 실업률은 기업의 감량 경영과 신규 채용 감소로 11월 2.2%에서 12월 2.3%로 상승
 - 경기 침체로 정부의 1월 세입실적은 7조 9,741억원으로 96년 1월의 8조 1,337억원보다 감소

수출 부진으로 사
상 최대의 경상 수
지 적자 기록

- (史上 最大의 經常收支 赤字)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 및 대일본 수출 경쟁력 약화로 1월 중 경상 수지 적자는 월간 사상 최대치 기록
 - 97년 1월 경상수지 적자는 96년 1월의 17.3억달러보다 13.3억달러 증가한 30.6억 달러를 기록
 - 반도체(-33.8%), 자동차(-75.9%)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으로 무역 수지 적자(국제 수지 기준)는 22.5억 달러로 나타남

- 여행 수지 적자가 3.6억 달러(96년 1월 2.5억 달러)로 증가하면서 무역외 수지 적자도 6.2억 달러에서 7.2억 달러로 증가
- 그밖에 투자 수익을 포함하는 이전수지가 0.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(96년 1월 0.2억 달러)

실물 경제의 부진으로 금융 변수들의 불안정성 심화

- (金融 不安定) 경제 불안정 심화로 환율, 금리, 주가 등 금융 변수들의 불안정 심화
 - 원/달러 환율은 지속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환투기까지 나타나면서 1월 18일 878.8원까지 상승하다가 한은의 개입으로 이틀만에 859.3원으로 급락(22일 현재 856.7)
 - 금리가 상승세로 반전하고 경기 회복이 불투명해지면서 종합주가지수는 20일 859.3p에서 22일 681.24p로 하락
 - 정부의 금리 하락 의지로 하락하던 금리는 한보 부도의 여파로 채권수요가 감소하면서 회사채수익률이 15일 12.02%에서 22일 현재 12.44%로 상승

경제 심리 안정없는 경기 침체의 가속화와 금융 혼란 지속 예상

- (展望 및 課題) 실물 경기에 대한 경제 심리의 회복없이는 경기 침체의 가속화와 금융 변수의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
 -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늘고 있어 경기 회복과 금융 변수들의 안정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
 - 또한 노동법과 한보 부도 등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,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금융의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것임
 - 따라서 경제의 안정성과 경기 회복 능력에 대한 對內外的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 혼란을 타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(이 태 열)

海外 景氣 概觀

美國 經濟의 現況 및 展望

- (現況) 미국 경제는 고용 안정 속에 소비 및 수출이 호조를 보여 96년 4/4분기에 4.7%에 이르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, 97년에 들어서도 경기 호조를 유지하고 있음
- (展望) 향후 미국 경기는 96년 4/4분기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 2% 이상의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

미국은 물가 안정 속에 경기 호조세를 유지

○ (現況) 미국 경제는 물가 안정 속에 96년 4/4분기의 성장률이 4.7%를 기록하였고, 97년에 들어서도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음

- 96년 3/4분기에 전분기 대비(연율) 2.1% 성장세를 보였던 미국 경제는 96년 4/4분기에 4.7%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음
- 3/4분기에 0.5% 증대에 그쳤던 소비 지출이 4/4분기에는 3.1% 증대하였음
- 이러한 소비 증대는 임금 상승 및 미국 금융 시장 활황으로 인한 가계의 금융 소득 증대 등에 따라 가처분 소득이 증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
- 3/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던 수출도 4/4분기에 9.9% 내외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
- 이러한 경기 호조 속에서도 4/4분기에 소비자 물가는 월평균 2.63% 상승에 그쳐 비교적 안정되어 있음

97년에 들어서도 경기 호조 속에 금융 시장 활황세가 유지

- 97년에 들어서도 고용 증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호조가 유지되고 있고, 이에 따른 증권 및 국채 등 금융 시장의 활황세도 유지되고 있어서 기업의 투자 재원도 풍부함
- 96년 4/4분기에는 월평균 217,000 명씩 창출되었던 신규고용이 97년 1월에는 271,000 명을 기록하여 고용 시장 호조가 유지
- 증시는 다우존스 주가 지수가 7,000을 돌파하면서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고, 달러화 강세로 외국 투자자들의 미국채 매

입도 증대하여 시장 금리 안정 속에 투자 재원도 풍부함

향후 경기가 소폭 둔화될 것이나 2%대의 성장세는 지속할 듯

- (展望) 96년 4/4분기를 정점으로 하여 미국 경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, 97년 전체적으로는 2%를 상회하는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
- 민간 소비는 민간 부문의 부채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
- 그러나 금융 소득 증대 및 고용 증대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, 향후 소비는 2~2.5%의 증가율로 2%대의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
- 기계류 설비에 대한 수요가 이미 크게 증대하였기 때문에 향후 설비 투자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
- 일본 및 유럽의 경기 회복 부진과 달러화 가치 상승의 효과가 가시화되어 수출 증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
- 상품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물가 상승 요인이 크지 않은 편임
- 미국 노동성에 의하면 96년 4/4분기美제조업들의 생산성은 전분기 대비 2.2% 상승하여 93년 4/4분기의 2.8%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음
- 고용 시장의 활황세가 지속되어 임금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 요인이지만, 경기가 다소 둔화된다면 당분간 공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음 (김재철)

<미국 경제 전망>

(%, 10억 달러)

	1995	1996	1997(E)	
			OECD	WEFA
실질 GDP 성장률	2.0	2.3(P)	2.2	2.3
소비자 물가 상승률	2.8	2.9	-	2.7
실업률	5.6	5.4	5.4	5.5
경상수지	-148.2	-171(P)	-161	-183

자료 : OECD, *OECD Economic Outlook*, 1996. 12.

WEFA, *World Economic Outlook*, 1997. 2.

주 : (P)는 잠정치, (E)는 전망치를 나타냄

II. 經濟 指標 포커스

1. 失業率 上昇勢

- (動向) 1.8% 수준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실업률이 96년 11월 2.2%, 12월 2.3%를 기록,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
- (內容) 경기 침체에 따른 인원 감축, 신규 채용 둔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여성, 고졸이상 학력자, 20대의 실업률 상승이 두드러짐
- (展望) 당분간은 고용 조정이 더욱 확대되면서 실업률은 상반기중 2.6~2.8%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

96년 말 이후 실업률 크게 상승, 11월 2.2%, 12월 2.3%에 달함

96년 12월 실업자 수는 1년전에 비해 10만 명 증가한 48만 명

- (動向) 하락세를 보이던 실업률이 96년 말 이후로 크게 상승하여 11월 2.2%, 12월 2.3%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
 - 96년 3/4분기까지는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임
 - 96년 1/4, 2/4, 3/4분기에 각각 2.2%, 1.9%, 1.8% 기록
 - 경기 하강이 고용 감소에 미치는 시차 효과와 구직을 포기한 잠재 실업자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
 - 96년 말 이후 노동 수요 둔화세가 본격화되면서 실업자수가 크게 늘어나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
 - '실제 실업자'들이 통계에서 누락되면서 96년 실업자수는 42만 명 내외로 95년과 비슷함
 - 연말부터 실업자가 크게 증가해 96년 12월에 48만 명으로 1년전에 비해 10만명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2년 4개월만에 가장 높은 2.3%를 기록함
 - 구인배율(구인/구직)이 2%대에서 최근 6개월간 연속 하락하여 96년 11월에는 1.45% 수준을 기록, 구직난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줌

<고용·실업 지표의 추이>

(단위 : 만 명)

	1995년				1996년					
	1/4	2/4	3/4	4/4	1/4	2/4	3/4	10	11	12
경제활동인구	2,008	2,099	2,112	2,100	2,042	2,134	2,148	2,168	2,181	2,120
실업자	49	41	40	39	46	41	39	40	44	48
실업률(%)	2.4	1.9	1.9	1.8	2.2	1.9	1.8	1.8 (1.9)	2.0 (2.2)	2.3 (2.3)

주 : ()내는 계절조정 실업률임

경기 침체에 따른
인원 감축, 신규
채용 둔화 본격화

여성, 고졸이상 학
력자, 20대 실업률
상승이 주도

고용 조정 확대로
상반기 2.6~2.8%
수준까지 상승

- (內容) 경기 침체에 따른 인원 감축, 신규 채용 둔화의 본격화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여성, 고졸이상 학력자, 20대의 실업률 상승이 두드러짐
 - 4/4분기에 실업자수 감소, 실업률 하락의 일반적 추세와 달리 96년 4/4분기는 실업자수 증가, 실업률 상승
 - 96년 4/4분기에 실업자수가 전분기보다 3만 6천 명 늘고 실업률이 전분기 대비 0.2%p 상승함
 - 여성 실업률은 2.0%로 전년 동월보다 0.5%p나 상승함
 - 家長의 실직을 대비한 여성의 구직 활동 급증
 - 96년 12월중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48.4%(전년 동월 47%)로 취업희망자가 크게 높아진 반면,
 -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적어 실업률 크게 상승
 - 고졸이상 학력자(대졸예정자 포함)의 실업률은 3.2%(전년 동월 2.4%)에 달함
 - 반면 중졸이하의 실업률은 1%대를 유지하고 있음
 - 연령별로는 20대의 실업률 상승이 두드러짐
 - 20~29세 실업자가 1년새에 5만 9천 명이나 증가함
 - 기존 근로자의 해고가 어려워 신규 채용의 감소를 확대함으로써 인원감축을 시도하는 국내 기업의 행태를 반영

- (展望) 고용 조정이 더욱 확대되면서 실업률은 상반기 기준 2.6~2.8%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
 -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이 4~5%대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추가적 고용창출 여력이 큰 폭으로 감소
 - 기업들의 재고조정-생산조정이 본격화된 이후로 고용조정세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
 - 2~3월의 채용기간동안 실업률이 크게 상승할 것임
 - 현재의 경제활동인구로 환산시 약 21,200명의 실업자가 증가하면 실업률이 0.1%p 상승하게 됨
 - 1/4분기에 실업자 53만 명, 실업률 2.56%에 달할 것으로 전망(재정경제원)

(민 주 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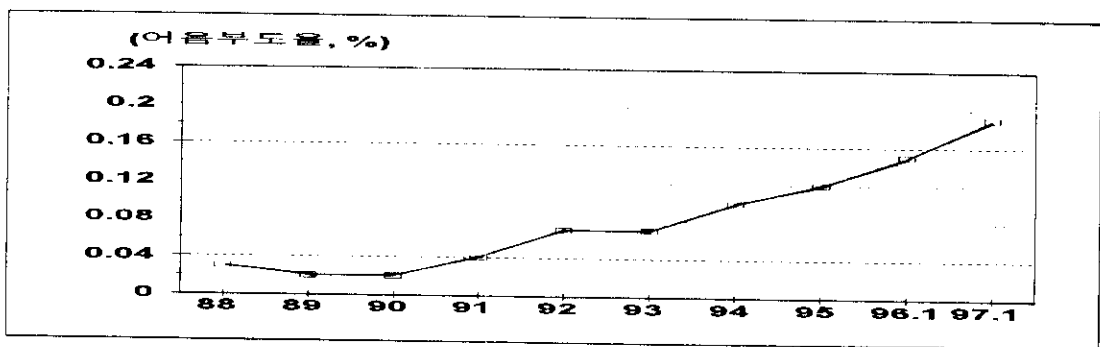
2. 어음不渡率 急上昇

- (現況) 97년 1월중 서울 지역의 어음부도율은 0.19%로 82년 5월 張玲子 사건時의 0.29% 이후 1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
- (原因)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韓寶 철강 부도로 銀行圈이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 보증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임
- (波及 效果) 어음부도율이 상승함에 따라 중소 기업의 연쇄 부도와 이로 인한 失業率의 상승, 경기 침체의 가속화가 우려됨

97년 1월중 서울 지역의 어음부도율은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

- (現況) 97년 1월중 서울 지역의 어음부도율은 0.19%로 82년 5월의 0.29% 이후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음
 - 옴들어 한보 철강 부도 전날인 1월 22일까지의 서울 지역 어음부도율은 0.11%로 96년 12월의 0.12%보다 낮았으나 1월 23일에는 0.40%, 31일에는 0.49%까지 상승하여 1월 평균 0.19%를 기록하였음
 - 이는 82년 5월 장영자 사건때의 0.29% 이후 1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
 - 1월중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공식 집계되지 않았으나 한보 그룹 협력 업체들이 충남 당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0.20~0.21%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

<서울 지역의 어음 부도율 추이>



- 1월중 부도로 당좌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모두 427개로 하루에 평균 17 개에 달함

한보 철강 부도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악화

- (原因) 한보 철강 부도로 금융 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 보증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
 - 한보 철강 부도로 금융 기관들이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
 - 綜合社들이 한보 철강 융통 어음으로 큰 피해를 본 할부 금융이나 파이낸스社들의 기업 어음 인수를 기피하고 있음
 -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대기업들의 어음 결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어음 기일도 늘어나고 있음
 - 이러한 대기업들의 매출 부진으로 중소기업 하청 업체들의 일감이 감소하고 있으며 결제도 지연되고 있음

중소 기업의 연쇄 부도와 실업의 증가, 경기 침체의 가속화가 우려됨

- (波及 效果) 어음부도율이 상승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와 이로 인한 실업의 증가, 경기 침체의 가속화가 우려됨
 - 한보 부도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월중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덕산 그룹이 부도난 95년 3월의 0.23%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
 - 한국은행이 긴급 자금 6조원을 방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의 자금 수요 증가로 회수가 늦어지고 있어 부도율의 증가가 예상됨
 - 향후 금융권에서는 부실 채권의 최소화를 위해 더욱 신용 대출을 기피할 것으로 보임
 - 금융권에서 자금을 얻지 못하는 기업들이 사채 시장으로 몰림에 따라 사채 금리의 상승이 예상됨
 - 어음부도율이 상승함에 따라 景氣 後行 指標인 실업률의 상승이 예상됨

(임 병 수)